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07.16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준회원국, FP10 유출 초안에 신중한 반응(7.10)

- FP10 초안이 유출되며, 준회원국의 참여 방식과 배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, 영국, 스위스, 뉴질랜드, 캐나다, 한국 등은 새로운 구조에서도 참여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 중임
- 준회원국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괄적 도구로 재편하는 유럽 경쟁력기금의 도입이며, 해당 국가들은 이 기금에도 가입해야 할지 우려. 일부 준회원국 과학 외교관들은 “FP10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해도 필라2 접근이 보장되는지 불확실하다”라며 집행위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
- 국방 등 일부 민감 분야는 동맹국 외 접근이 제한되고, 관련 공모에서 준회원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 FP10 제안서 초안에는 단순히 “제3국은 프로그램 일부에서 배제될 수 있다”고만 명시할 뿐, 어떤 예외 조항도 포함하지 않음
- 준회원국들은 참여 조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 중

○ EU 회원국 연구장관들, 독립적인 필라2 촉구(7.14)

- 9개 EU 회원국 연구 장관들이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에게 서한을 보내,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서 협력연구 중심의 필라2가 독립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
- 호라이즌 유럽의 필라2에서 가장 활발히 참여 중인 스페인과 독일이 이번 서한 발송을 주도. 서한은 협력연구를 통해 ECF가 시장 진출 및 벤처 캐피탈 자금 지원 기회 확대 등 혁신의 상용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시사

○ 유럽 연구계, FP10 유출 초안에 긍정적이지만 조심스러운 기대 표명(7.9)

- Heitor는 제안서가 초기 단계에 불과함을 언급하며, 현재 호라이즌 유럽은 초기 초안과 매우 다르고, 협상 과정에서 독립적 거버넌스를 도입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힘
- 일각에서는 연구혁신-시장도입 간 연계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일종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

- (기타) ▲ERC, 2026년부터 7년간 최대 700만 유로 규모 ‘슈퍼그랜트’ 공고 개시 예정(7.10) ▲유럽혁신스코어보드 발표 … 유럽, 혁신 경쟁력에서 우수한 성과 보여(7.15) ▲ERC, 2025년 개념증명보조금 수혜자 150명 발표(7.14)